

전남도, 60억 들여 '핫플' 만든다... 노후 관광지 4곳 새단장

장흥 우산도, 무안 회산백련지
화순온천, 곡성 도립사 등 선정
신규 콘텐츠 개발·시설 정비 박차

전라남도는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장흥 정남진 우산도, 무안 회산백련지, 화순온천, 곡성 도립사 관광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개발된 지 10년 이상 된 관광지 등의 시설과 엠지(MZ)세대에게 소외받는 콘텐츠, 부족한 관광약자 시설 등을 보강해 관광객에게 안전과 볼거리를 제공, 찾고 싶은 관광지로 새단장 하는 사업이다.

장흥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는 2천 700억 원의 복합리조트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정남진 전망대 콘텐츠 보강, 주변 공원 시설물 정비 및 안내판 교체, 감성방안간 예술 전시시설 증축 등을 추진한다.

무안 회산백련지 관광지는 기존 노



광장노후시설 개선과 탐방로 개보수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한 '해남 땅끝 관광지' 전경. /뉴스

후 카라반을 교체·정비하고, 최근 가족 관광객이 선호하는 방갈로를 신규 설치한다. 동양 최대 백련 서식지를 활용해 체험·숙박 등을 즐기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계획이다.

화순온천 관광지는 온천을 중심으

로 1984년 지정됐다. 금호화순리조트, 아쿠아나 시설 등을 제외하면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고 관광객에게 쾌적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가로등교체 및 편의시설 정비, 족구장 설치, 쉼터 등을 조성한다. 또 민자 투자유치를 통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SF로봇

수련센터 등 콘텐츠도 보강할 계획이다.

곡성 도립사 관광지는 광주와 인접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도립사계곡, 섬진강 기차마을 등과 연계해 가족단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 노후 캠핑장, 카라반, 야외비비큐장 등을 정비해 생태·체험 콘텐츠를 갖춘 관광지로 재생시킬 계획이다.

전남도는 관광단지 6개소, 관광지 27개소, 관광특구 2개소 등 35개소 중 20년 이상 된 관광지 18개소가 있어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비를 지난해보다(37억 원)보다 62% 많은 60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강진 대구요, 해남 땅끝 등 10개 관광지에 183억 원을 들여 노후 관광콘텐츠 및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황매산철쭉제 4년만에 막 올라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 산청 황매산에서 핑크빛 향연 '산청황매산철쭉제'가 4년 만에 막이 오른다.

29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축제 위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정기총회에서 '제39회 산청황매산철쭉제'를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철쭉 풍년 제례를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행사, 농특산물 판매장터, 향토음식점 등 철쭉제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철쭉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구미시

'조국 근대화 첫 여정' 기획전시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하 역사자료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 60주년이 되는 2023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1963, 조국 근대화를 위한 첫 걸음)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가진다.

이번 전시 1963년은 올해와 같은 계묘년이자 제3공화국이 수립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해로 군정(軍政)에서 민정(民政) 이양이라는 큰 정치적 대전변과 사회, 경제, 문화 등 일련의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며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와 함께 당시 생산된 박정희 대통령 유품과 사진을 전시해 시대 공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진주시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 협약

경남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에서 진주경찰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안전사각지대 발굴과 환경개선 등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사업 대상지는 경상국립대학교 정문 맞은편 원로부 밀집지역으로 야간에 어둡고 위험한 거리를 밝게 조성하고 가시킵 설치 등으로 범죄발생률을 줄여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해남, 군민 스포츠 생활지원 체육시설 3개소 확충 속도

'제2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2024년 12월 준공 목표

전남 해남군이 군민 스포츠 생활지원과 전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383억 원을 투입해 제2스포츠타운을 비롯해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등 3개소의 체육시설을 추진한다. 삼산면 평창리 일원에 8.8ha 규모로 조성되는 제2스포츠타운은 도비 43억원 등 181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2스포츠타운은 정식규격의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해남군은 우של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늘면서 제2스포츠타운



해남 우של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제2스포츠타운은 숙박과 음식점이 밀집된 삼산면 인근에 조성되면서 대항사 및 인근 숙박시설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해 동절기에 상권활성화는 물론 미남축제 개최와 연계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합체육문화센터는 해남읍 신안리 부지 일원에 138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40㎡로 지어진다. /해남(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中企 대출이자 반으로 부담 줄여

금리 대폭 감면 지원 '행복자금'

경북도내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됐다.

경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곤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이하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에서 확보한 500억원은 은행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2배수인 1000억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리를 대폭 감면 지원하는 '행복자금'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해 대출재원 600억원(도, 은행 각 300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었다.

도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해 사업을 확대했



경북도청.

다. 이로써 행복자금 가운데 도 재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융자규모는 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었다.

협약에 따른 감면금리 적용으로 기업에게는 최초 산출금리의 50% 이하로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과 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과 경영여로 기업, 기업은행은 수출·일자리 창출·고용예정 기업 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지하2층, 지상8층 300병상 규모

울산시는 29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김두겸 울산시장,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11번째로 지어지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총공사비 2277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4만 7962㎡, 지하2층, 지상8층의 3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18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재활전문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와 2개 연구소(직업병연구소, 재활보조기 연구소) 등을 갖추고 오는 2026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 환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산업현장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해 일·가정 적응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는 일반진료, 응급의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1.2억 투입

망정동 48번지 인근 부지 확정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이 사업부지 확정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총사업비 1200억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대공연장, 소공연장, 리허설실, 대기실 등 최신 공연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22일 제1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 회의를 개최하여 건립 후보지 6개소 중 4개소로 축소했고, 3월 28일 제2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우로지 생태공원

이 위치한 망정동 48번지 인근 36650㎡ 부지를 최종 건립 예정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로지 남측, 한의마을 건너편 등 총 4개 후보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로지생태공원 후보지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건립부지의 32%가 사유지라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경제성과 중심성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leesh0412@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확산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음악 ▲국악 ▲연극 ▲다원 8개 분야로 팀별 최소 3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10개팀 내외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